[기자회견문]

**국민연금 탈석탄 선언 후 3년,**

**국민연금의 결단과 국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0.05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미 1.45도나 증가했다. 그만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기후 지표는 작년에 최악을 기록했다. 기후위기로 인해 대파,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치솟아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지고, 홍수, 산불 등 기후재난이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3년, 국민연금이 탈석탄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비해버린 시간이다. 석탄투자 제한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최종보고까지 받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논의 조차 되고 있지 않다. 회의록 조차 공개하지 않는다. 그 어떤 요구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국민연금은 신뢰와 투명성을 스스로 상실했다.

  13조 원, 국민연금은 탈석탄 선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석탄 관련 기업에 늘려온 투자금액이다. 수익성도 이제는 옛말이다. 석탄발전 비중이 점차 줄어들어 발전소가 없어지거나 가동률이 낮아진다. 연금개혁에서 이야기하는 기금운용수익률 1% 향상도 좌초자산과 이별하지 않고서 불가능하다. 오히려 연금고갈을 부추길 것이다.

  국민연금은 글로벌 5대 연기금과 비교해, 기후 리스크 대응 속도가 매우 더디다. 국민연금은 탈석탄 이행을 시작으로 금융 분야의 탄소중립을 위해, 2040년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그에 맞는 액션 플랜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이틀 뒤 출범하는 22대 국회의 역할이 막중한 이유다.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기후위기 대응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올해까지 석탄발전 매출 비중 30% 이상 기업에 투자를 제한하는 기준(석탄투자 제한기준)을 조속히 도입하라.
* 하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2040년 금융배출량 넷제로 목표를 선언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라

**경남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인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60+기후행동** (가나다순) **/ 국회의원 당선자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서왕진(조국혁신당)**